

# 靑, 박영선·김연철 장관 오늘 임명하나

### 내일 국무회의·10일 방미 고려...진영 장관 등 5인 임명장 한국당 반발에 대치 정국 가속...공수처 설치 등 진통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7일 알려지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이들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8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8일 청문회를 거친 인사 중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들은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머지 5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

행될 경우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국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선거제 개편 법안 등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공식 부적격자임을 집대성한 장이었다"며 "정권의 대북관과 막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간판 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한

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은 4월 민생국회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청와대의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에 헌법재판관 등이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탁현민, 민주 홍보위원장 맡을 듯

###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백원우·이철희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현민 대통령 행사 기획 자문위원을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탁 자문위원 영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홍보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안됐으며,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올해 연초부터 홍보위원회의 인원·기능 보강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과 전략을 홍보에 녹여내는 구심점으로서 홍보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탁 자문위원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기존 당직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 홍보기획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보며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썬'도 그의 책임 아래 전면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곧 탁 자문위원에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당 홍보기획을 이끌어달라고 공식 제안을 하고, 탁 자문위원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탁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아직 홍보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바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양정철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4일 제임 김민석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 연구원장 이·취임식을 열어 그동안 연구원이 쌓아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당직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백 전 비서관의 경우 한때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물밑에서 인재영입을 촉진 지원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도착 장하성(가운데) 신임 주중대사가 7일 오후 중국 서우두(首都) 공항 귀빈실을 통해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장서평 중국 외교부 아주사 참사관 등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이나와 장 신임대사를 맞이했다. /연합뉴스

## 정가라운지

### 천정배, 한미 방위비분담금 심사 5대 원칙 제시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6가지 부대 의견을 담아 국회 본회의를 지난 5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시한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과 우리 분담금의 주일미군 역의 군수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면서 "정부는 이 의견을 반드시 준수해 다음 협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천 의원은 제시한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은 ▲주둔비 전액 부담은 SOFA 협정 위반 명시 ▲분담금의 주한미군 특수정보 시설

집행 불가 ▲군수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면서 "정부는 이 의견을 반드시 준수해 다음 협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4월국회 '첩첩산중'

### 추경·탄력근로·선거제 개편 등 곳곳 지뢰밭

오는 8일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전망은 어둡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정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어 4월 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4월 국회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 마련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 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버리고 있다.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답보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용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사회적 대화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 때문에 이들이 네 번째 교섭단체로 재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김경진 "모든 수용자 미성년 자녀와 자유 면회"

앞으로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 갑) 의원은 7일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보호 등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형집행법'은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미성년 자녀 접견이 가능해 자녀 양육에 대한 양성의 책임과 권한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교도소장 등이 신입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의 요청 시 보호조치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대출·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칠산면 월계리 죽림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한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반도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금매(주택) - 광산구 도천동 주택(병2) 대지 109㎡ 7천만원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아울렛 중 2층 전유 38㎡ 은행1억 매도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룻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191㎡ 팬션 건물 2동 380㎡ 수영장. 매도 3억7천
- 충청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급매**

- 여주시 봉강동, 대지 431평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 대출-20억5천만원
- 시세/감정가-약 40억
- 모든업종 개발가능
- 분할매매 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다스코진 세라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는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위임 받은 분
  - 대표 당근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 사업에)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사업주에게 유망하다
  - 태양광 사업주에게 유망하다
  - 태양광 영업 관련 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010-3627-8282, ksc@daesco.co.kr, 062-513-4306  
세라믹: 010-3627-8282, sc@daesco.co.kr, 062-513-4306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로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대상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회
	영업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업관리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 주
	세라믹(영업)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양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접수처: 담당 010-3627-8282, ksc@daesco.co.kr, sc@daesco.co.kr